

오순절 후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3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4 번 시편(Psalm) 10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b>야고보서 (James) 1:1-11</b>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찬양대
설 교 Sermon	<b>“신앙을 삶으로 (1) - 시험을 만나거든” (Living out Your Faith – Facing Trials)</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95 장 “너 시험을 당해” (새 34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갈등이 점점 더해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삶이 뒷받침되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3-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한글개역 **약 12-3**)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NIV **James 1: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3 (주일)	6/14 (월)	6/15 (화)	6/16 (수)	6/17 (목)	6/18 (금)	6/19 (토)
	신18	신19	신20	신21	신22	신23	신24
본문	시105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시114,115
	사45	사46	사47	사48	사49	사50	사51
	계15	계16	계17	계18	계19	계20	계2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6/16수 오후7:30)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후 6:1-10)
토요 새벽기도회 (6/19토오전6:30)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42:1-11)

지난 주일(6/6)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30) – 주님의 마음으로” (빌 2:1-12)

“그리스도인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진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즉, (단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를 계속해서 묻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1)첫째, 비우는 마음 (케노시스)이고 (빌26-7), 2)둘째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데타페이노센)’이며 (빌28상), (마지막) 3)셋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후페르쿠스)이기 (빌28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악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먼저) 비워져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1)자기를 비우고, 2)자신을 낮추며, 3)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